금주의 법구–〈법구경〉
욕망의 숲을 자르고
욕망서 벗어난 자가 돼라.
그리고 영원한 자유를 찾아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42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3년 음력 3월 20일) 2019년 4월 24일 수요일

“백만 명 원력이 한국불교 바꾼다”

조계종, 17일 백만원력 결집운동 선포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조계종이 한국불교 주요 현안들을 사부대중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개하는 ‘백만원력 결집운동’을 공식 선포했다. 사부대중의 매일 100원 기부를 바탕으로 승려복지, 전법포교, 자비나눔 등의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본부장 정념)는 4월 17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산하위원회인 백만원력결집위원회 ‘백만원력결집 선포식’을 봉행했다. 백만원력결집운동은 지난 2년간 종단 안팎의 갈등 상황으로 인해 흩어진 불심을 다시 한 곳으로 모아 한국불교 중흥의 기틀을 마련하자는 취지의 모연캠페인이다. 사부대중 개개인이 매일 대승원력보살 발원문을 독송하고, 100원씩 모아 한 달에 3000원을 기부하는 형식이다.

백만원력 결집운동은 각각 불 · 법 · 승 삼보의 주제에 맞춘 대형 불사가 중심이다. 불(佛)은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룬 성지 인도 부다가야에 한국 사찰을 건립하는 것으로 순례자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게 된다. 법(法)은 육 · 해 · 공 3군본부 계룡대에 영외법당을 지어 젊은 군불자들이 언제나 마음 편히 법문을 듣고 예불을 올릴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다. 승(僧)은 불교요양병원을 세워 스님과 불자들이 수행생활을 영위하며 치료와 간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복지불사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한국불교 사부대중이 대승원력 보살로 거듭나 한국불교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마중물이 될 것을 당부했다. 원행 스님은 대회사를 통해 “한국불교는 근래 들어 고령화와 탈종교화, 세속화라는 간단치 않은 시대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그런데 환경의 변화에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응할 역량이 부족한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원력 보살 한 사람 한 사람은 종단을 비추는 햇살이다. 백만 명의 원력 보살이 힘을 모으면 우리는 찬란한 불교 부흥의 시대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원행 스님은 불 · 법 · 승 각각의 불사 외에 460년 전 지진에 쓰러진 것으로 알려진 무게 70톤 규모의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을 세우는 데도 사부대중이 동참해줄 것을 호소했다.

원행 스님은 이어 “중생은 업력으로 고해를 살아가고, 불보살은 원력으로 지금 여기에 불국토를 건립한다. 물러나지 않는 서원과 실천으로 불보살은 자신과 타인, 개인과 사회를 함께 성장시키고 완성한다”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한국불교가 세상에 의미 있게 존재하고, 부처님 가르침이 빛나게 하기 위해서는 대승보살의 원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선포식에서는 어린이불자부터 학생, 성인, 전국 사찰 주지스님과 신도들까지 사부대중이 백만원력 결집운동 약정에 대거 동참했다. 조계사 어린이와 의정부 광동고교, 중앙승가대학, 학교법인 동국학원을 비롯해 군종특별교구, 생명나눔실천본부, 중앙신도회, 포교사단 등이 순서대로 약정서를 원행 스님에게 전달했다. 특히 조계사와 봉은사는 각각 10만 명분을 약정해 눈길을 끌었다. 약정서 전달 이후에는 선포식에 동참한 사부대중이 함께 ARS로 기부에 동참하는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한국불교 중흥 기틀 마련코자
佛 · 法 · 僧 주제 원력불사 추진
매월 3000원으로 결집 동참
부담 없는 보시바라밀 실천

원로의장 세민 스님은 “백만원력결집 모연 불사는 종단의 희망찬 앞날을 기약하는 매우 뜻깊은 선연이라서 불보살님의 가피공덕 또한 한량이 없을 것”이라며 “우리불자 모두 희망찬 앞날을 위해 흔쾌히 마음을 내 발심하고, 원력을 발하여 하루하루 기쁘고 편안하며 행복한 마음 가득하길 발원한다”고 격려했다.

백만원력 동참대중은 이날 삼보전에 8가지의 원력 실천을 다짐했다. 이들은 백만원력결집선언문을 통해 △대승 원력 보살로 거듭나기 △보시 바라밀 실천 △부처님 가르침 따라 살기 △건강한 화합 공동체 만들기 △부처님 도량 꾸미기 △세상 속에서 불교 실천 △생명 평화 실천 △부처님 가르침 전법 교화 등을 서원했다.

한편 선포식에는 원로의장 세민 스님을 비롯해 중앙종무기관장과 교역직 스님, 교구본사주지, 중앙종회의원, 종정기관장, 주요사찰 주지, 각급 신도 · 포교단체장 등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참석했다.



마음愛 자비를 세상愛 평화를… 불기 2563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탑 점등식이 4월 17일 서울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열렸다. 올해 봉축장엄등은 국보 제11호인 ‘미륵사지탑등’이다. 올해 봉축 표어인 ‘마음愛 자비를 세상愛 평화를’ 새기며 각 종단 총무원장 등 불교계 내빈들이 미륵사지탑등을 점등하고 있다.
글 · 사진=박재완 기자

‘어린이 눈높이’ 동화 같은 연등회

5월 3~5일 종로 일대서, 어린이 프로그램 다수 기획

‘작은 팔모등’ 직접 만들어
연등행렬 현장 참가 가능
전통문화마당 체험 부스엔
어린이 명상 등 눈길 끌어

국내 최대 전통문화축제이자 전 세계인들이 5월 중 한국에서 꼭 경험해야 할 축제로 손꼽는 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가 올해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열린다. 행사현장에서 직접 팔모등을 만들어 연등행렬에 참가할 수 있고, 어린이들을 위한 각종 체험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부처님오신날 봉축위원회와 연등회 보존위원회는 5월 3일부터 5일까지 서울 종로 일대에서 2019 연등회 본행사를 개최한다. 매년 전통문화와 평화, 화합 등의 가치를 중심으로 열리는 연등회지만 올해는 어린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가족단위의 프로그램이 다수 기획돼 눈길을 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작은 팔모등 만들기’다. 이 행사는 연등회의 백미인 연등행렬에 앞서 4일 오후 2시부터 탑골공원에서 진행된다.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를 중심으로 어린이와 가족들은 각자 팔모등을 만들고, 오후 7시부터 진행되는 연등행렬에 동참할 수 있다. 기존에는 사찰과 단체 위주로 연등행렬을 실시했으나 올해는 가족들이 직접 소형 장엄등을 들고 행렬에 참여해 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뿐만 아니라 조계종 종립학교 은석초등학교에서도 처음으로 120여 명의 학생들이 연등행렬에 동참하며,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한 행렬단들은 선두에 서서 태극초롱등 · 동자동녀등 · 별등 · 팔모등을 대중에 선보인다. 또한 어린이와 가족의 이미지를 담은 ‘뚜루루 상어가족등’과 ‘라이언등’의 친근한 캐릭터 등도 종로의 밤을 밝힐 예정이다.

5일 조계사 앞길에서 펼쳐지는 전통문화마당에도 어린이 프로그램 부스가 대거 설치된다. △어린이 다도체험 △어린이 불교예절 △어린이 마음보기 명상 등 어린이날에 맞춰 즐기는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안국동 특설무대서는 어린이 · 청소년 · 외국인들의 다양한 공연도 만날 수 있다.

2019 연등회는 4월 17일 서울 광화문 점등식을 시작으로 축제 대단원의 막이 올랐다. 이후 조계사와 봉은사, 청계천 일대에 전통등전시회가 부처님오신날까지 진행된다. 연등행렬에 앞서 봉축분위기를 한껏 띄우는 어울림마당은 5월 4일 오후 4시 30분, 동국대 대운동장서 펼쳐진다. 여기에는 40여 단체의 어린이 · 청소년 · 청년율동단과 등단별 연희단 1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연등행렬 이후 참가자와 관객들이 남녀노소 구분 없이 함께 춤과 음악을 즐기는 회향한마당은 오후 9시 30분 종각 사거리에서 진행된다. 올해에는 젊은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음악장르인 EDM 등을 활용한 연등회 노래가 울려 퍼진다.

한편 연등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부 행사구간은 교통이 통제된다. 연등행렬이 이어지는 종로1가 사거리~흥인지문 구간은 4일 오후 1시부터 이튿날 새벽 3시까지, 세종대로 사거리와 안국사거리~종로1가 사거리 구간은 4일 오후 6시부터 이튿날 새벽 1시까지, 동국대~흥인지문 구간은 4일 오후 6시부터 8시 30분까지 전면 통제된다.

윤호섭 기자



시방세계 A5
전국 봉축일정

강의실중계 A7
천태종 삼광사 특강 – 장상목 동아대 교수



